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도약

현대글로벌비스 아산KD센터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종합물류유통기업으로 첨단 정보시스템과 선진 물류기술을 활용해 국내·국제물류, 해상운송,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이다. 또한 최근에는 물류는 물론 유통, 자원개발 및 자원순환을 활용한 친환경 경영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현대글로벌비스 아산KD센터는 현대글로벌비스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해외공장 자동차 조립생산용 부품(KD : KNOCK DOWN) 공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이다. 2004년 11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 인주지방산업단지 내에 준공된 현대글로벌비스 아산KD센터는 임직원 50명과 협력사 인원 300명 등 총 350명의 인력을 갖추고 KD사업의 본산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곳 센터는 포장, 운송은 물론 현지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 등 KD물류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글로벌비스 아산KD센터는 자동차 조립생산용 부품을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조달해 전 세계로 운송·판매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보장이 기업경영의 초석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이곳의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는 현대글로벌비스 아산KD센터를 찾아가봤다.

취재 김성대 기자 glsu002@safety.or.kr



###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

현대글로벌비스 아산KD센터는 자동차부품을 동종 부품끼리 포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장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 내 운행되는 전동지게차만 해도 50여 대에 달할 정도로, 해외 현지공장에 수출되는 물량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처럼 활발한 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물류장비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곳 아산KD센터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류장비인 전동지게차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동지게차가 후방 1m 내에서 물체를 인식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해 놓은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더해 아산KD센터는 이달 중으로 전동지게차 후방에 카메라를 장착시켜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산KD센터는 근로자들의 신체조건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설치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미세한 불편함이나 피로감 등도 재해 발생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 근로자의 휴먼에러 방지 위한 노력 전개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방심과 실수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휴먼에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산KD센터는 이런 점에 착안해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전동지게차 등의 설비에 책임자 명패를 부착하는 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센터 내 모든 전동지게차에 운전자의 이름과 무재해 일수, 작업에 임하는 각오를 매일 업데이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무재해 일수를 규정 일수 이상으로 달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지급이나 유급휴가 제공 등 별도의 포상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센터 내에서 전동지게차의 운행속도를 제한(전진 8km/h, 후진 6km/h)해 놓은 것 역시 근로자의 휴먼에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근로자는 주요 설비와 장비에 대한 일일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정비해나가는 한편, 일일당직자는 작업시작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매일 1회, 2시간씩 안전순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다음, 안전 관리자가 하루에 한 번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글로비스 아산 KD센터는 독거노인 자원 봉사 등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회 환원 차원에서 회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내면의식을 고양하고, 전 직원이 하나 된 분위기로 소통하는 안전관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현대글로비스 아산KD센터는 근로자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해나가는 선진 안전사업장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중시하며 21세기 물류산업을 이끌어 나갈 현대글로비스 아산KD센터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

###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소통'의 문제일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문화는 안전관리자가 단독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 관리자 등의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아산KD센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 MINI INTERVIEW



허상철 아산KD센터 운영실장

### 사람이 안전해야 제품도 안전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단순히 근로자 한 명에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개개인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회사, 가족,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손실이 되고 맙니다.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전 세계 각지의 자동차 공장에 한 번 유통하는 데에는 보통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60일 동안 물류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안전해야 제품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점에 착안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가 관계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